

4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발표일: 2020년 4월 1일



해양기상정보

- 해상특성(최근 5년간('15~'19년) 4월)
 - 상·중순: 남해(남해동부·서부), 동해, 제주도 해상에서 파고 약간 높았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 파고 낮았음
 - 하순: 남해(남해동부), 동해, 제주도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 파고 낮았음
 - ※ 유의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 풍랑특보일 수(최근 5년간('15~'19년) 4월)
 - 6.0일(상순 2.5일 / 중순 1.9일 / 하순 1.5일)로 전월(7.4일)보다 1.4일 적음
- 해수면온도('19년)
 - 3월 실황: 서해(6.0~ 9.5℃) / 남해(12.4~15.5℃) / 동해(12.9~15.4℃)
 - 4월 예측: 서해(8.0~14.0℃) / 남해(12.0~17.0℃) / 동해(12.0~16.0℃)
- 조석정보(고극조위, '19년 4월)
 - 인천: 10일(931cm) / 완도: 9일(395cm) / 포항: 28, 29, 30일(30cm)

해양안전정보

- 해양선박 사고(최근 5년간('15~'19년))
 - 전체 16,010척 중 1,235척(7.7%)으로 연 평균 247여척의 사고가 발생
 - ☞ 4월은 해상시정이 제한되는 기상여건으로 해상 선박사고 중 충돌·접촉·좌초사고가 221척(17.9%)가 많아 기상특보 및 항행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저시정시 가용수단을 동원하고 안전규칙 준수가 필요함

어업정보

- 4월 어황 전망
 - 고등어, 망치고등어, 삼치는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 갈치, 아귀류, 반지, 삼치, 전어, 갑오징어류, 참돔, 눈볼대, 용가자미는 평년수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협조: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0년 4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는 2020년 4월 1일에 발표됩니다.

해양기상정보

■ 최근 5년간('15~'19년) 및 지난해('19년) 4월 유의파고(평균, 최고)



< 최근 5년간('14~'19년) 및 지난해('19년) 4월 순별 유의파고(평균, 최고) >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맹골수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남해동부	거제도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동해중부	울릉도, 동해, 독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동해남부	포항	죽변, 구룡포, 후포
제주도	마라도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최근 5년)

○ 최근 5년간('15~'19년) 4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전 해상	0.7m(상순 0.7m / 중순 0.7m / 하순 0.6m)로 전월(0.7m)과 비슷	
	앞바다	먼바다
서 해	0.3m (전월보다 0.1m 높음)	0.6m (전월보다 0.2m 낮음)
남 해	0.6m (전월보다 0.1m 높음)	1.0m (전월과 비슷)
동 해	0.8m (전월보다 0.1m 낮음)	1.2m (전월보다 0.1m 낮음)
제주도	0.7m (전월보다 0.1m 낮음)	1.1m (전월보다 0.2m 낮음)

<순별 평균 유의파고>

- 4월 상순과 하순에 남해(남해서부·동부), 동해, 제주도 해상에서 파고 약간 높으며, 하순에 남해(남해동부), 동해, 제주도 해상에서 파고 약간 높았음
- 서해 등 그 밖에 해상에서는 파고 낮았음

	앞바다			먼바다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 해	0.4	0.4	0.3	0.7	0.6	0.5
남 해	0.6	0.6	0.5	1.2	1.0	0.9
동 해	0.8	0.8	0.7	1.2	1.2	1.1
제주도	0.8	0.7	0.6	1.3	1.1	1.0

※ 파고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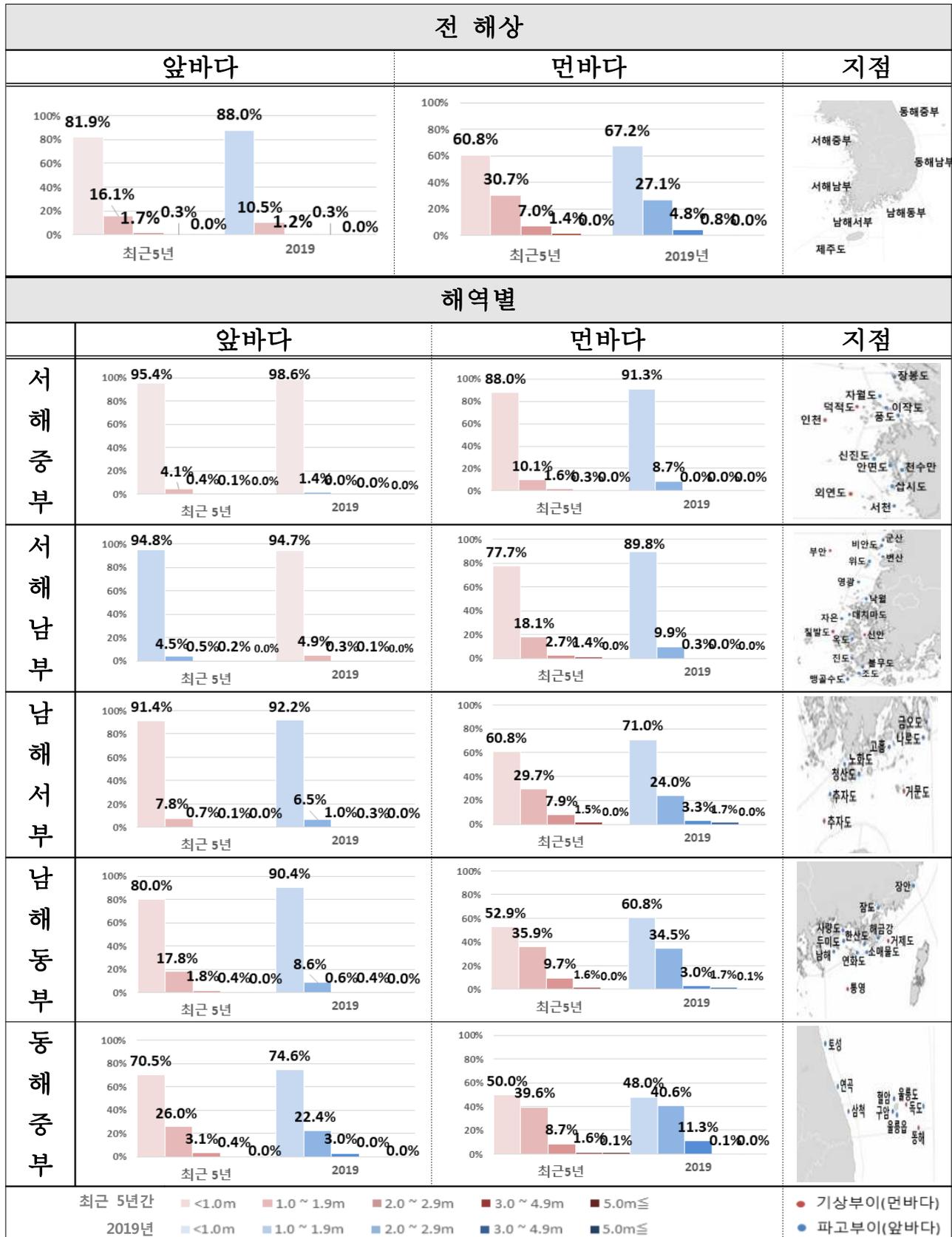
○ 최근 5년간('15~'19년) 4월 해역별 최고 유의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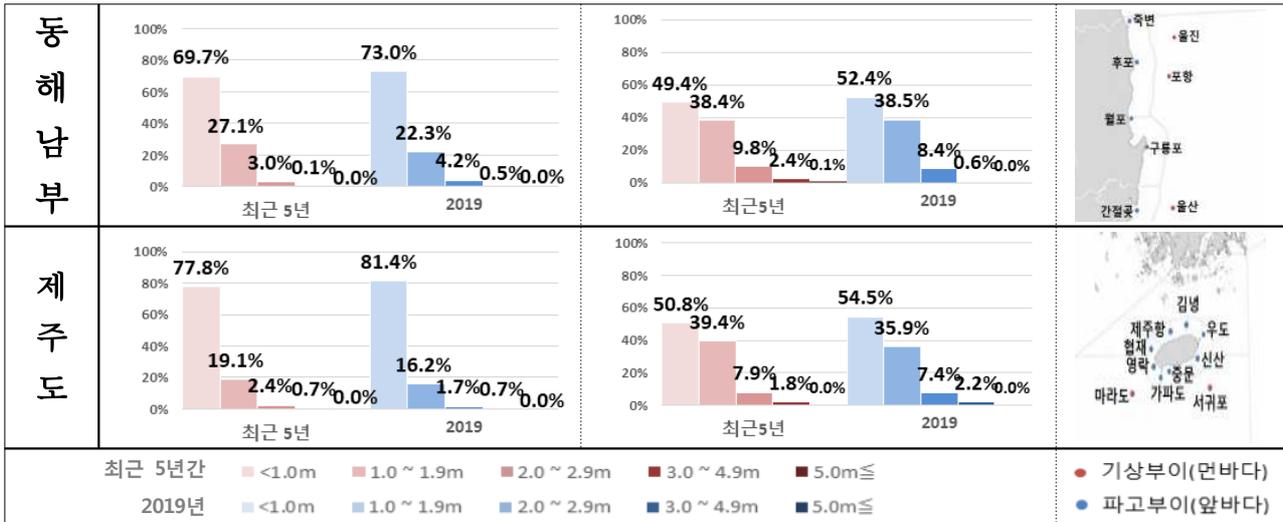
- 서 해: 앞바다 1.6m / 먼바다 1.9m
- 남 해: 앞바다 1.9m / 먼바다 2.5m
- 동 해: 앞바다 2.3m / 먼바다 2.7m
- 제주도: 앞바다 2.5m / 먼바다 2.6m

○ 관측 이래 4월 지점별 기상부이 유의파고(일 평균, 일 최고) 극값 순위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 해	칠발도	'13.4.7	3.9 (5.9)	칠발도	'12.4.3	3.5 (6.6)	칠발도	'13.4.6.	3.4 (5.2)
남 해	거제도	'10.4.22.	3.6 (4.6)	거문도	'12.4.21.	3.4 (5.3)	거문도	'12.4.3.	3.2 (4.3)
동 해	울릉도	'13.4.7.	5.1 (6.2)	울릉도	'12.4.4.	5.0 (6.1)	동해	'13.4.7.	4.9 (7.3)
제주도	마라도	'12.4.3.	4.4 (6.7)	마라도	'13.4.6.	4.1 (5.5)	마라도	'18.4.7.	3.6 (4.5)

■ 최근 5년간('15~'19년) 및 지난해('19년) 4월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간('15~'19년) 및 지난해('19년) 4월 전해상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 (앞바다) 1m미만 81.9%, 2m이상 2.1%
(먼바다) 1m미만 60.8%, 2m이상 8.5%
- 지난해 (앞바다) 1m미만 88.0%, 2m이상 1.5%
(먼바다) 1m미만 67.2%, 2m이상 5.6%

○ 최근 5년간('15~'19년) 4월 해역별 유의파고 분포

- 서해 (앞바다) 1m미만 95.4%, 2m이상 0.4% (먼바다) 1m미만 81.6%, 2m이상 2.7%
- 남해 (앞바다) 1m미만 84.5%, 2m이상 1.6% (먼바다) 1m미만 58.1%, 2m이상 10.0%
- 동해 (앞바다) 1m미만 70.3%, 2m이상 3.4% (먼바다) 1m미만 49.8%, 2m이상 11.0%
- 제주도 (앞바다) 1m미만 77.8%, 2m이상 3.1% (먼바다) 1m미만 50.8%, 2m이상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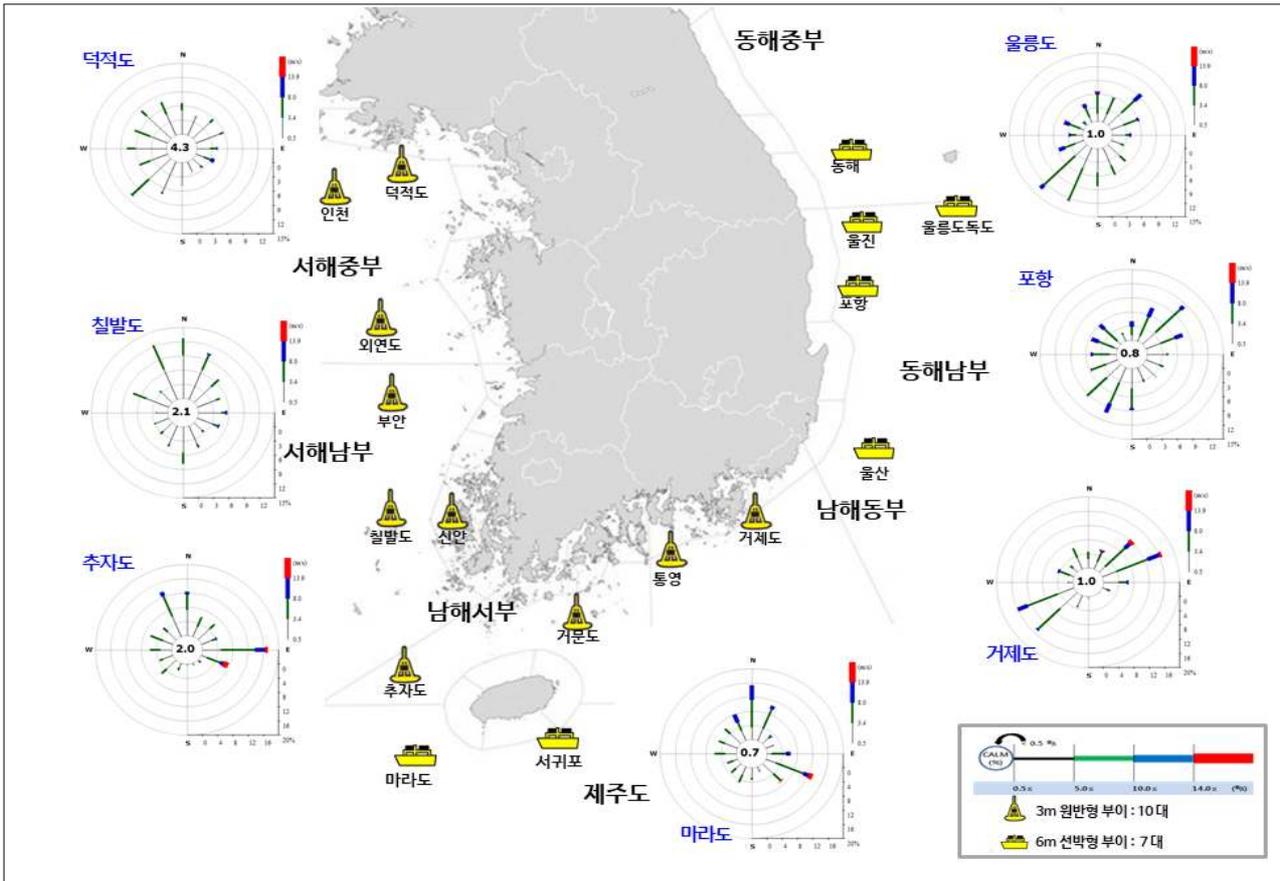
○ 최근 5년간('15~'19년) 4월 유의파고 분포 최다 해역

- 최근 5년 (1m미만) 서해중부앞바다(95.4%)
(2m이상) 동해남부먼바다(12.2%)
- 지난해 (1m미만) 서해중부앞바다(98.6%)
(2m이상) 동해중부먼바다(11.4%)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장봉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신안, 맹골수도, 대치마도, 비안도, 자은, 낙월, 변산, 조도, 위도, 불무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나로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남해, 연화도*, 사랑도*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울릉서부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신산, 영락

[참고] 최근 5년 통계 지점, 지난해('19년) 통계자료는 *지점이 추가되었음

■ 지난해('19년)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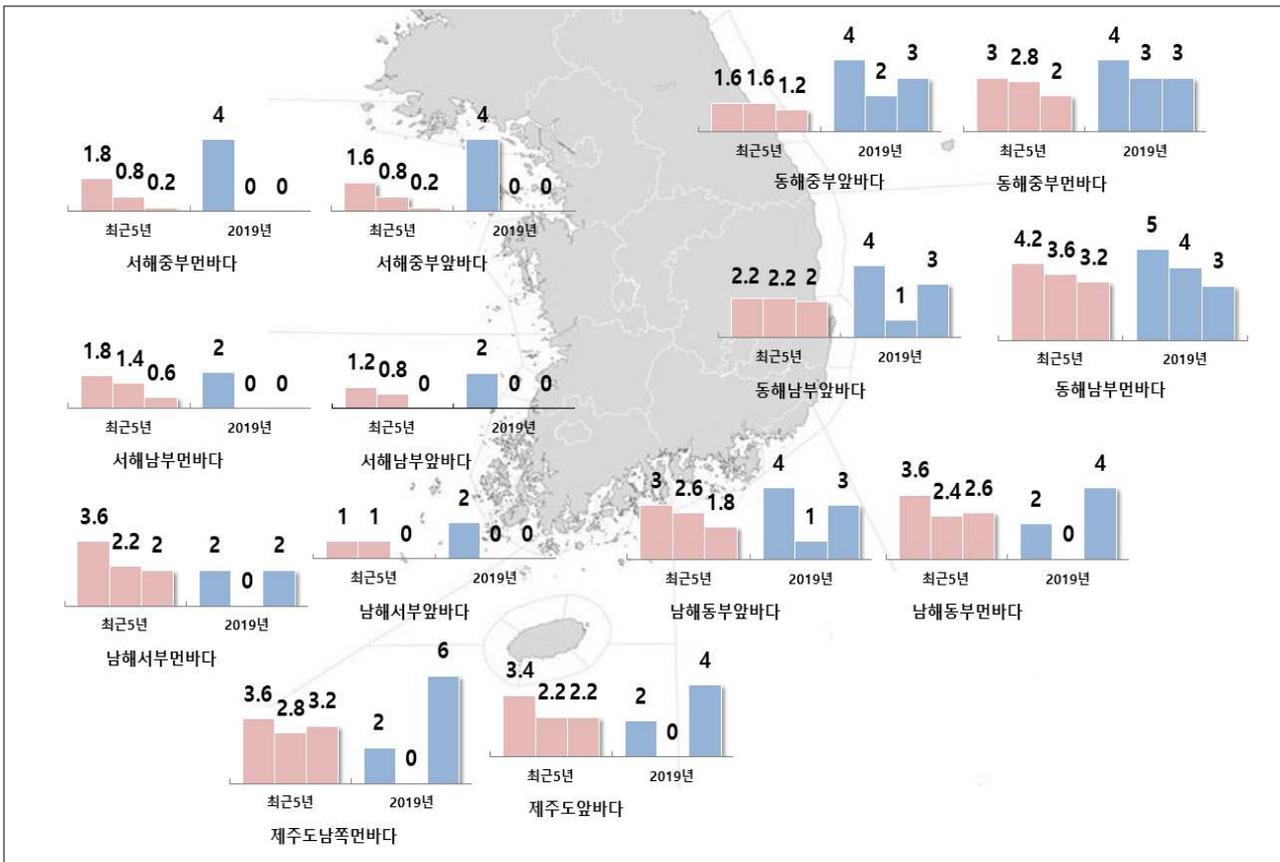
< '19년 4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 지난해('19년) 4월의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관측지점
		Calm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SW~NW	3.6	73.9	21.5	1.0	0.0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N	3.7	73.6	22.0	1.0	0.3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E	1.5	47.1	44.0	5.5	2.0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SW, NE	1.5	41.1	47.1	8.8	1.6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SW, NE	1.2	42.5	49.8	6.6	0.3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SW, NE	0.6	38.1	48.4	12.2	1.8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	N, SE	1.0	40.8	47.9	9.2	1.2	마라도, 서귀포
전 해상		1.9	51.0	40.1	6.3	7.2	

- 주풍계: 동해상에서 남서풍과 북동풍계열, 남해와 제주해상에서는 남동풍, 북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음
- 전 해상 풍속: 5.0m/s 미만 52.9% / 5.0 ~ 9.9m/s 40.1% / 10.0m/s 이상 7.2%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 5.0m/s 미만: 서해중부(77.5%)
 - 10.0m/s 이상: 남해서부, 제주도남쪽(10.4%)

■ 최근 5년간('15~'19년) 및 지난해('19년) 4월 풍랑특보일 수



<최근 5년간('14~'19년) 및 '19년 4월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 4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

- 최근 5년: 6.0일, 전월(7.4일)보다 1.4일 적음
- 지난해: 6.1일, 전월(11.6일)보다 5.5일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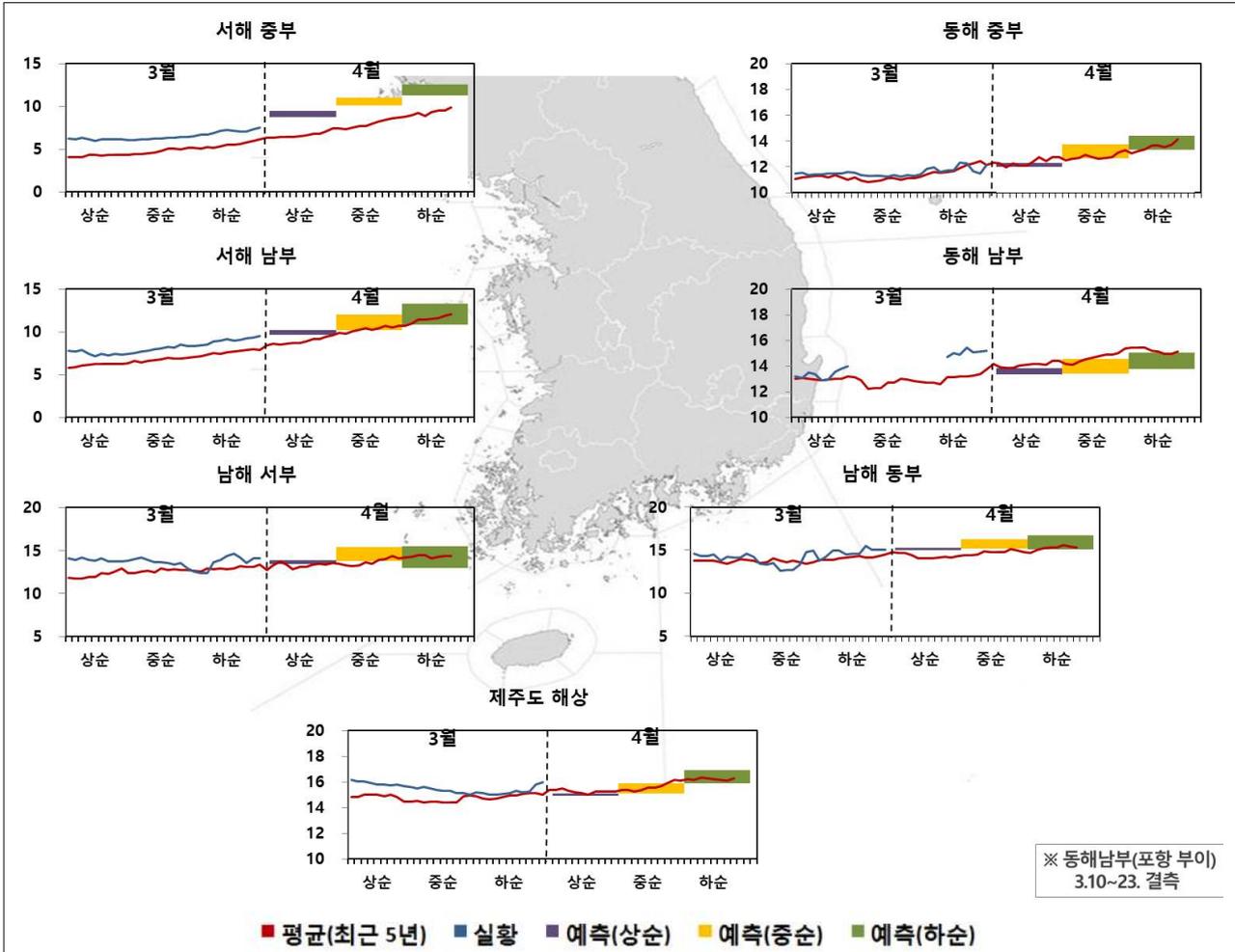
○ 4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5년: 상순 2.5일 / 중순 1.9일 / 하순 1.5일
- 지난해: 상순 3.1일 / 중순 0.8일 / 하순 2.2일

○ 4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 최근 5년: 제주도남쪽먼바다(14.4일) / 서해남부앞바다(3.6일)
- 지난해: 동해남부먼바다(12일) / 서해남부, 남해서부앞바다(2일)

■ 해수면온도 지난달(3월) 실황 및 4월 예측



< 해수면온도 3월 관측값 및 4월 예측 >

- ☞ 해수면온도는 해양기상부이에서 관측한 수온을 사용하였으며 '평균(최근 5년)'은 최근 5년간('15~'19년) 4월 관측값의 평균, '실황'은 지난달(3월)의 관측값임
 -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 서해남부(칠발도)
 - 남해서부(거문도, 추자도), 남해동부(거제도), 제주도(마라도)
 -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동해남부(포항)
- ☞ 해수면온도 예측정보는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예측값을 사용하며,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난달 ('20년 3월) 해역별 해수면온도 특성

해역	3월 해수면온도(°C) (최근 5년 평균 편차)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6 ~ 6.3 (+1.9)	6.2 ~ 6.7 (+1.6)	6.7 ~ 7.5 (+1.6)
서해남부	7.1 ~ 7.9 (+1.4)	7.7 ~ 8.5 (+1.4)	8.5 ~ 9.5 (+1.5)
동해중부	11.3 ~ 11.6 (+0.3)	11.3 ~ 11.9 (+0.3)	11.5 ~ 12.3 (+0.1)
동해남부	12.9 ~ 14 (+0.4)	(결측)	14.7 ~ 15.4 (+2)
남해서부	13.7 ~ 14.2 (+1.8)	12.4 ~ 14.2 (+0.7)	12.4 ~ 14.6 (+0.9)
남해동부	13.4 ~ 14.6 (+0.4)	12.6 ~ 15 (-0.1)	14.5 ~ 15.5 (+0.8)
제주도남쪽	15.5 ~ 16.1 (+0.9)	15 ~ 15.6 (+0.7)	15 ~ 16 (+0.4)

○ 최근 5년간('15~'19년) 4월 해수면온도 평균 및 '19년 4월 해역별 해수면온도 예측

(과거) 최근 5년간 4월 해수면온도 평균		(예측) '19년 4월 해수면온도	
관측지점	범위(°C)	해역	범위(°C)
덕적도, 외연도	6.3 ~ 9.8	서해중부	8 ~ 13
칠발도	8.2 ~ 12.1	서해남부	9 ~ 14
울릉도, 동해	12 ~ 14.1	동해중부	12 ~ 15
포항	13.9 ~ 15.5	동해남부	13 ~ 16
거문도, 추자도	12.8 ~ 14.5	남해서부	12 ~ 16
거제도	14 ~ 15.6	남해동부	15 ~ 17
마라도	15 ~ 16.4	제주도남쪽	15 ~ 18

조석 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4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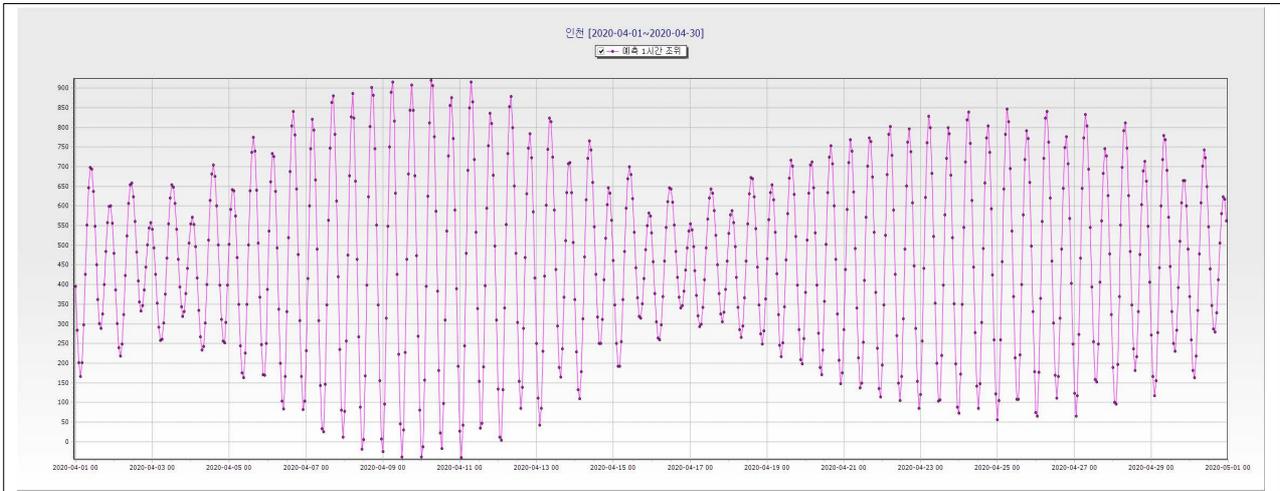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4월 10일에 931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4월 9일에 395cm, 동해안의 포항은 4월 28, 29, 30일에 30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4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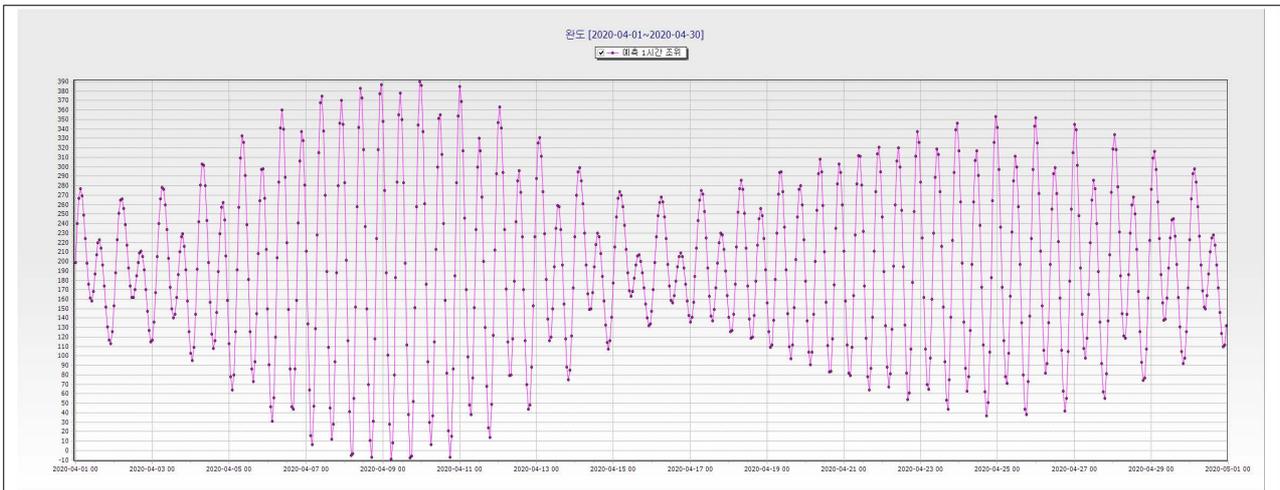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망 4.8)		대조기(삭 4.23)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서해안	인 천	17:20	910	05:12	830
	안 흥	16:13	678	04:14	619
	군 산	15:33	697	03:32	637
	목 포	14:35	459	02:29	418
남해안	제 주	23:14	279	23:17	250
	완 도	22:41	389	22:41	348
	마 산	09:06	198	21:20	180
	부 산	08:36	126	20:54	114
동해안	포 항	03:30	22	15:55	24
	속 초	02:51	27	15:12	26
	울릉도	02:34	17	14:43	21

☞ 2020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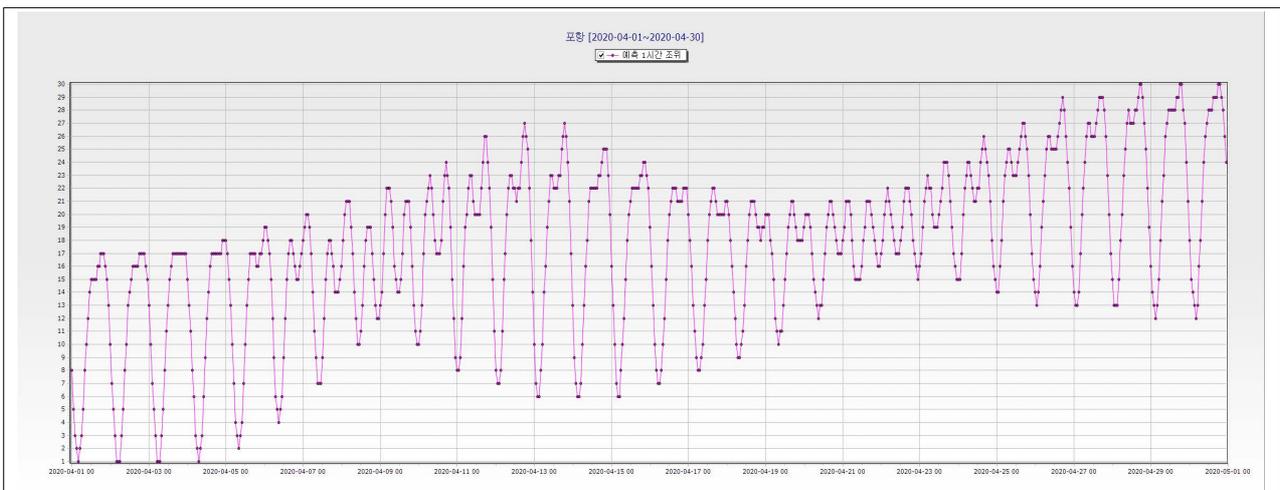
4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0년 4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0년 4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0년 4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해양안전정보

해난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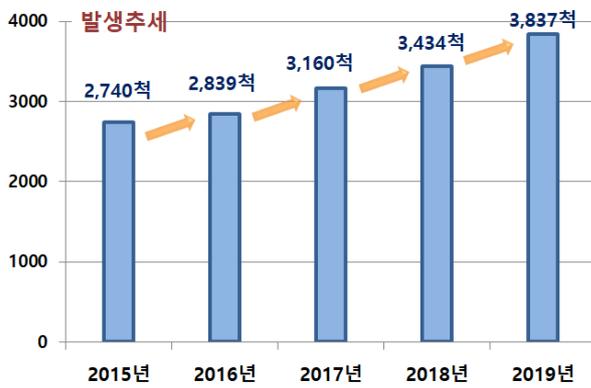
제공: 해양경찰청

■ 최근 5년간('15~'19년) 해상조난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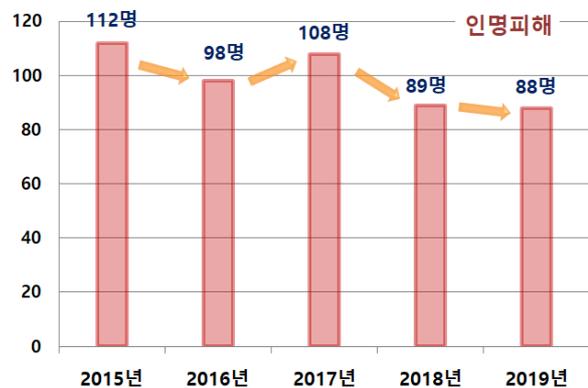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 총 16,010척(95,060명)이 발생하여 선박 15,627척(97.6%) 및 승선원 94,579명(99.5%)이 구조되었고, 승선원 495명(0.5%)이 사망(320명)·실종(175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

구 분	발 생		구 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 망	실 종
계	16,010	95,060	15,627	94,579	495	320	175
2019년	3,837	19,196	3,720	19,122	88	56	32
2018년	3,434	19,588	3,385	19,499	89	56	33
2017년	3,160	17,296	3,108	17,188	108	83	25
2016년	2,839	20,145	2,775	20,047	98	48	50
2015년	2,740	18,835	2,639	18,723	112	77	35

* 2019년 통계는 잠정 자료이며, 2019년 4월 통계 확정 예정



< 사고발생 추세 >



< 인명피해 현황 >

☞ 4월 주요 해상조난사고는 부록2. 를 참고

■ 해상조난사고 현황

- (총괄) 최근 5년 간 4월에 발생한 해양 선박사고는 전체 16,010척 중 1,235척(7.7%) 으로 연 평균 약 247척의 사고가 발생
 - * 동 기간 사망·실종자는 32명 발생
 - (선종별) 어선 687척, 레저선박 219척, 예부선 75척, 낚시어선 64척 순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를 제외하고, 충돌·접촉사고가 151척(12.2%) 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침수 95척(7.7%), 좌초·좌주 70척(5.7%) 순

해양 안전정보

- 4월은 안개 등으로 인해 해상의 시정이 제한되는 기상여건으로 해상 선박 사고 중 단순사고(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등)를 제외하고는 운항부주의로 인한 충돌·접촉·좌초 및 좌주 사고가 221척(17.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해양 종사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및 항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의 철저한 점검, 저시정시 가용수단 동원(무중신호, 경계 강화 등) 및 안전속력 유지 등 안전규칙 준수가 필요함
 -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이용, 사용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송신되는「海 Road 어플」 설치 권장
 -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 가입을 통한 해양기상 정보 수신
 - * 해역별 기상실황 및 예·특보 등 해양기상정보를 SMS 및 MMS로 제공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15~'19년) 4월 해양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4월 해양사고: 평균 187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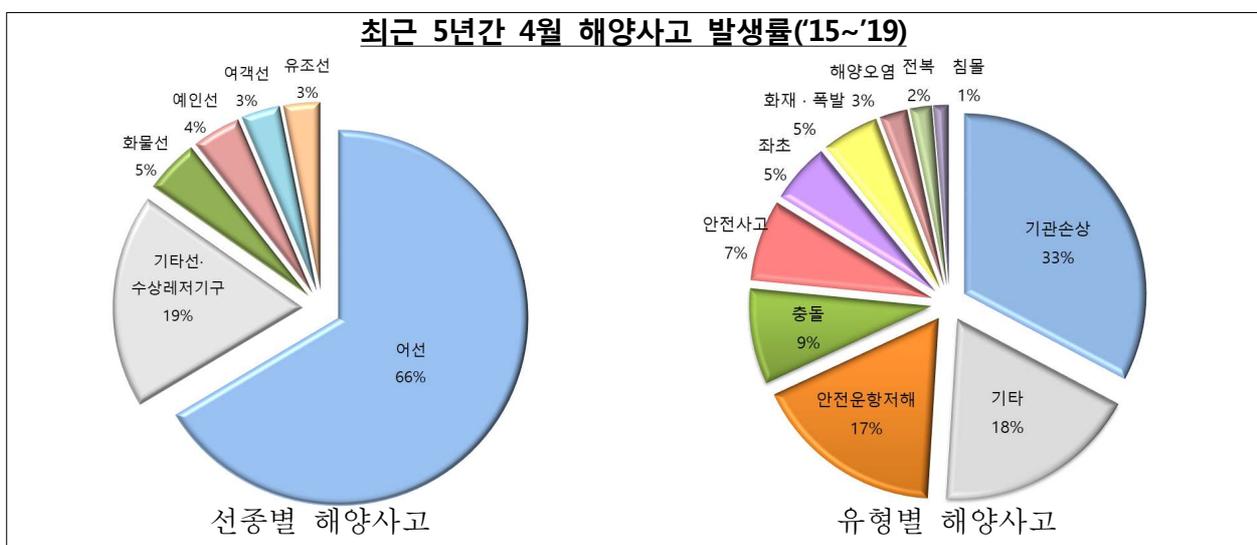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70	128	163	187	219	220	215	238	276	275	222	211

○ (선종별) 어선 687척, 기타선·수상레저기구 191척, 화물선 48척, 예인선 43척, 여객선 34척, 유조선 32척 등의 순(총 1,035척)

○ (사고유형별) 기관손상 304건, 안전운항저해 158건, 충돌 79건, 안전사고 67건, 좌초 50건, 화재폭발 47건, 해양오염 23건, 전복 18건, 침몰 12건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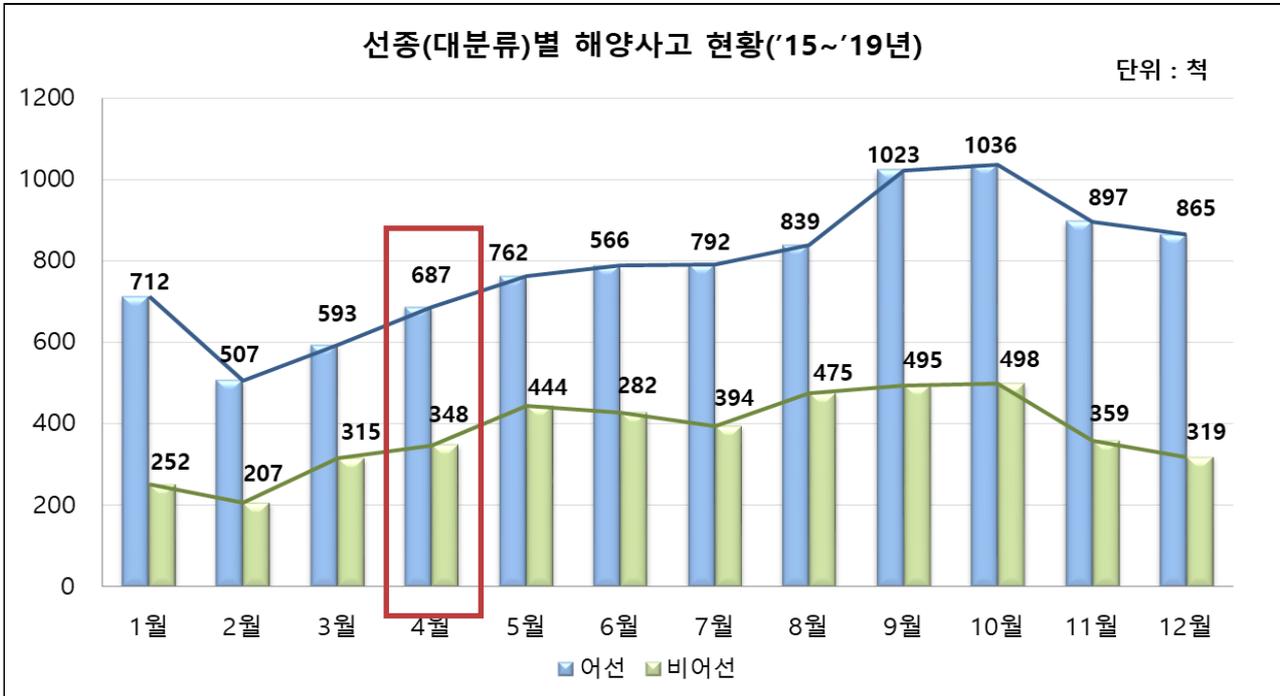
■ 4월은 성어기 및 레저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선박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 (사고예방) 4월 해양사고는 평균 187건으로 3월(163건) 대비 15%(24건) 증가,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18%(24건) 증가하여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 - 특히 인적오류가 주원인인 안전사고 및 좌초사고가(23건) 3월(15건) 대비 1.5배 증가
- (충돌대비) 봄철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겨울보다 신체의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로도가 상승하여 춘곤증·무기력증 등이 쉽게 나타나므로 당직 또는 작업 전 충분히 휴식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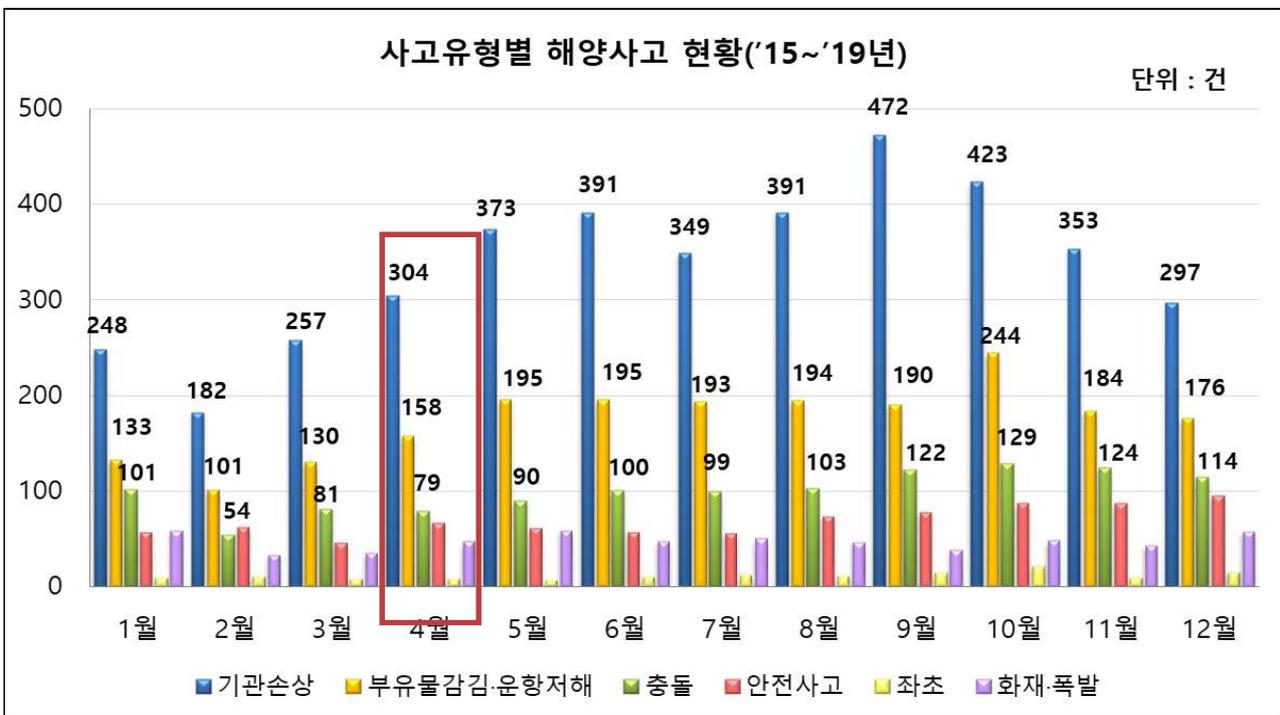


■ 최근 5년간('14~'18년) 월별 해양사고 현황

○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 4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3. 참고

어업정보

제공: 국립수산물과학원

■ 4월 어황정보

○ 지난달(14월)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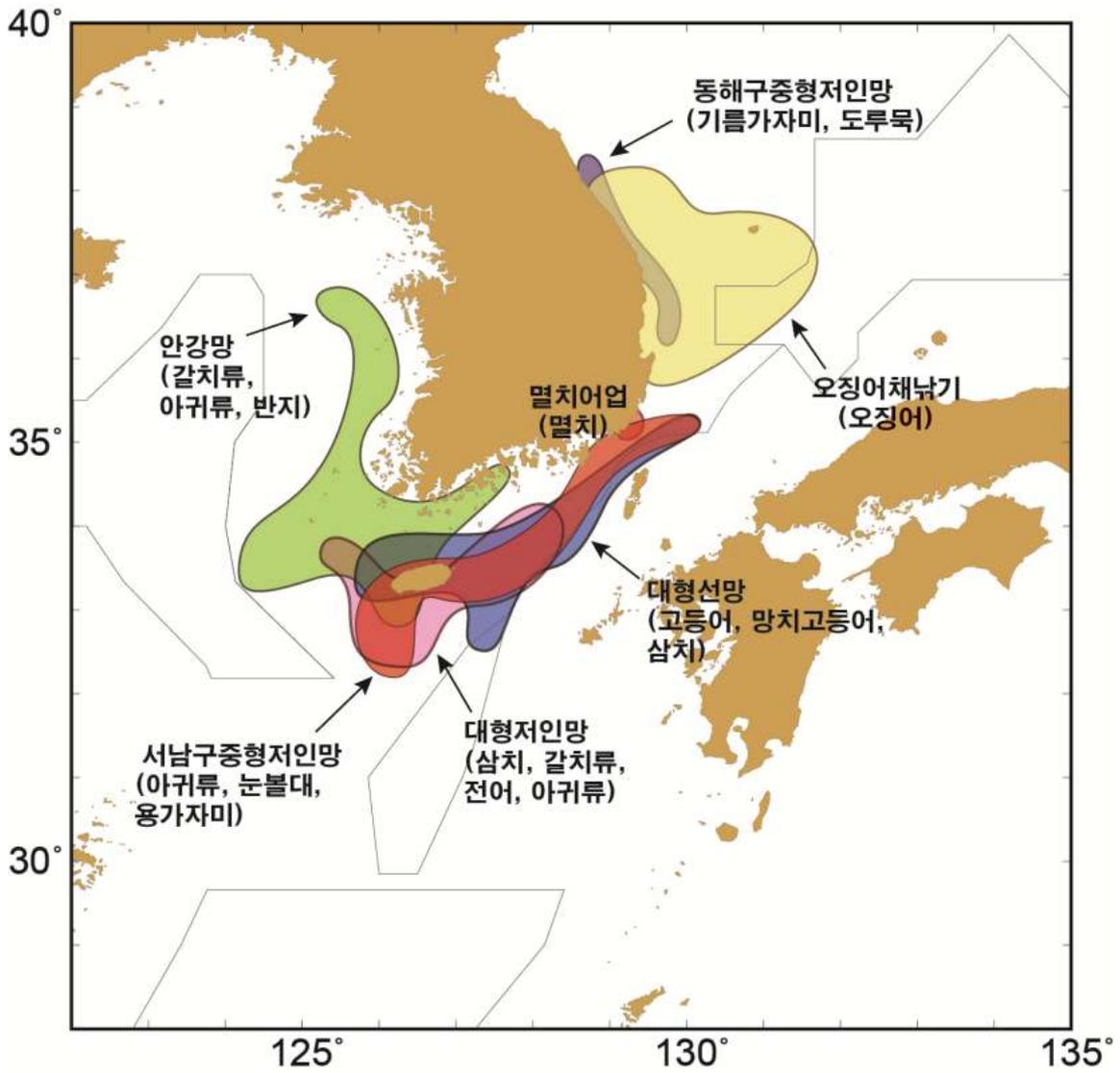
- 3월(월보기간: 2.16~3.21)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는 평년비 순조로웠고, 갈치와 전갱이는 평년수준을 나타냈으나, 망치고등어와 참조기는 평년비 부진하였음

○ 4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망치고등어, 삼치 등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 및 동부 근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으로 전망됨
- 권현망어업: 4월부터 멸치 주산란기를 맞아 3개월(6월 30일 까지)간의 금어기에 들어가겠음
- 근해안강망어업: 서해 중부~제주도 북서부 근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갈치, 아귀류, 반지 등의 어군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예상됨
- 저인망어업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삼치, 갈치, 전어, 아귀류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서부~남해 중부 근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음
 - 대형외끌이저인망어업: 제주 주변 전역에 걸쳐 아귀류, 갑오징어류, 용가자미, 참돔, 눈볼대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 아귀류, 눈볼대, 용가자미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서부 근해 및 남해동부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과 경북 연근해를 중심으로 기름가자미, 도루묵 등을 대상으로 조업음
 -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오징어채낚기어업: 업종별 금어기(4.1.~4.30.)에 들어가겠음

○ 주요 어종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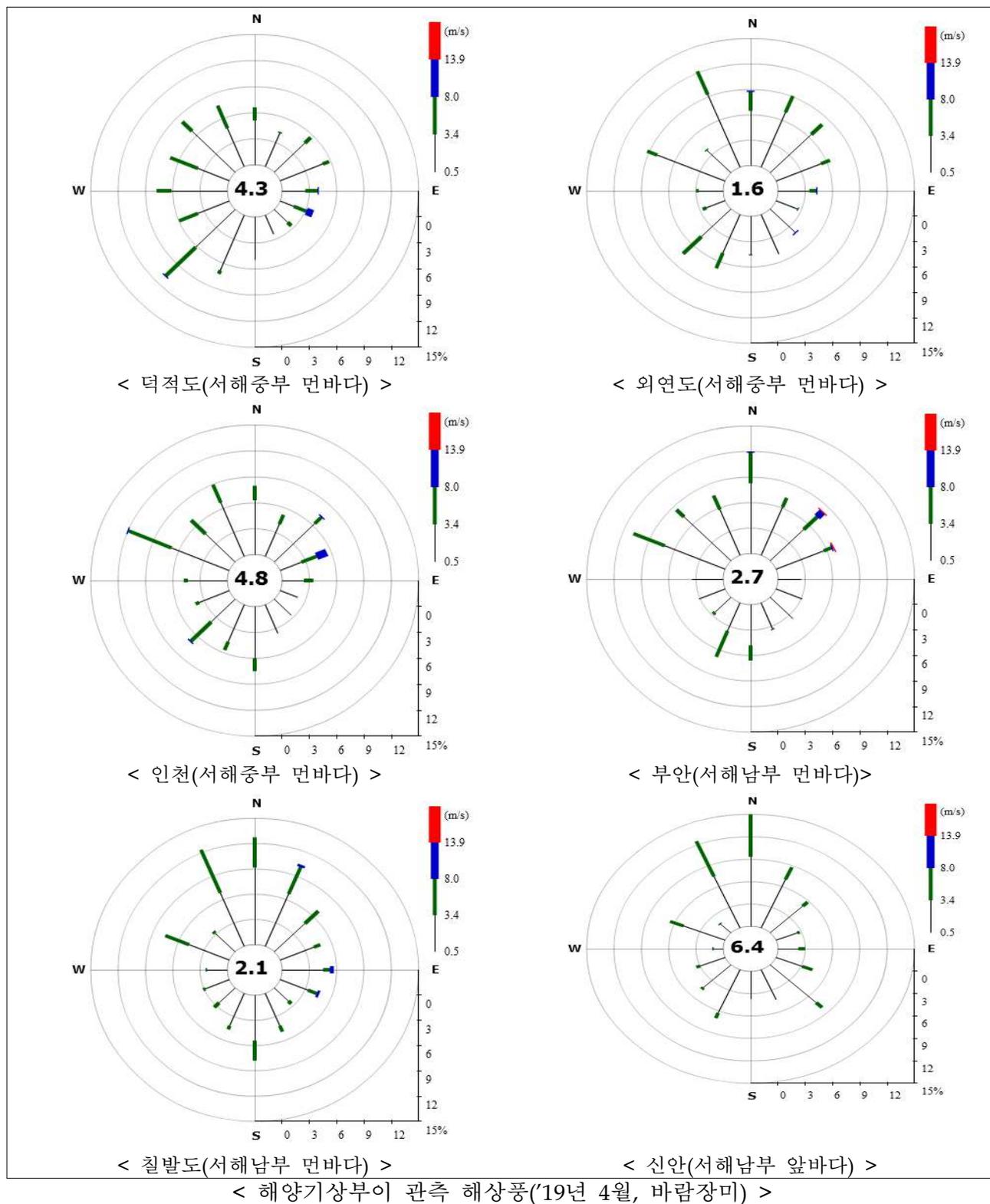
고 등 어	제주 서부해역과 대마도 북동쪽 일본해역에서 어군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제주 서부해역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연중 한어기에 속해 전체어획량은 다소 적겠고,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살오징어	어군의 월동 및 산란 활동에 의해 동중국해에서의 어군밀도가 높은 시기로 연중 한어기(3~6월)를 맞겠고, 4~5월 동안 이어지는 금어기로 인해 조업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어기: 정치망은 제외, 근해채낚기와 연안 복합어업은 4월 한 달간 실시.
멸 치	울산~기장 근해로 회유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봄철 어기가 시작되겠다. 주업종인 멸치권 현망 어업은 주산란기(4~8월)를 맞은 멸치자원의 보호를 위해 4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금어기가 시행되겠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갈 치	제주 북부 및 서부 근해를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나, 연중 한어기(4~5월)로 어군 밀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미성어(폴치, 금지체장: 항문장 18cm) 어획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어 소형어를 대상으로 한 어획자제가 필요하다.
참 조 기	제주주변해역과 제주 서부 근해역에서 일부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연중 한어기로 어장은 한산하겠다. 주업종인 근해유자망어업은 참조기 산란시기(3~6월)를 맞아 4월 하순(4.22)부터 8월 초순(8.10)까지 실시되는 금어기에 들어가겠다. 미성어(금지체장: 전장 15cm) 어획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형어 보호를 위한 어획자제가 요구된다.
전 갱 이	산란시기(2~4월)를 맞아 동중국해와 일본 규슈해역으로 남하하는 어군에 의해 우리 어장에서의 어군밀도가 낮아지겠다. 제주 주변해역과 남해 근해에서 일부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 타	망치고등어는 제주 주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의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말귀치는 제주 남부와 동부 근해를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평년수준의 어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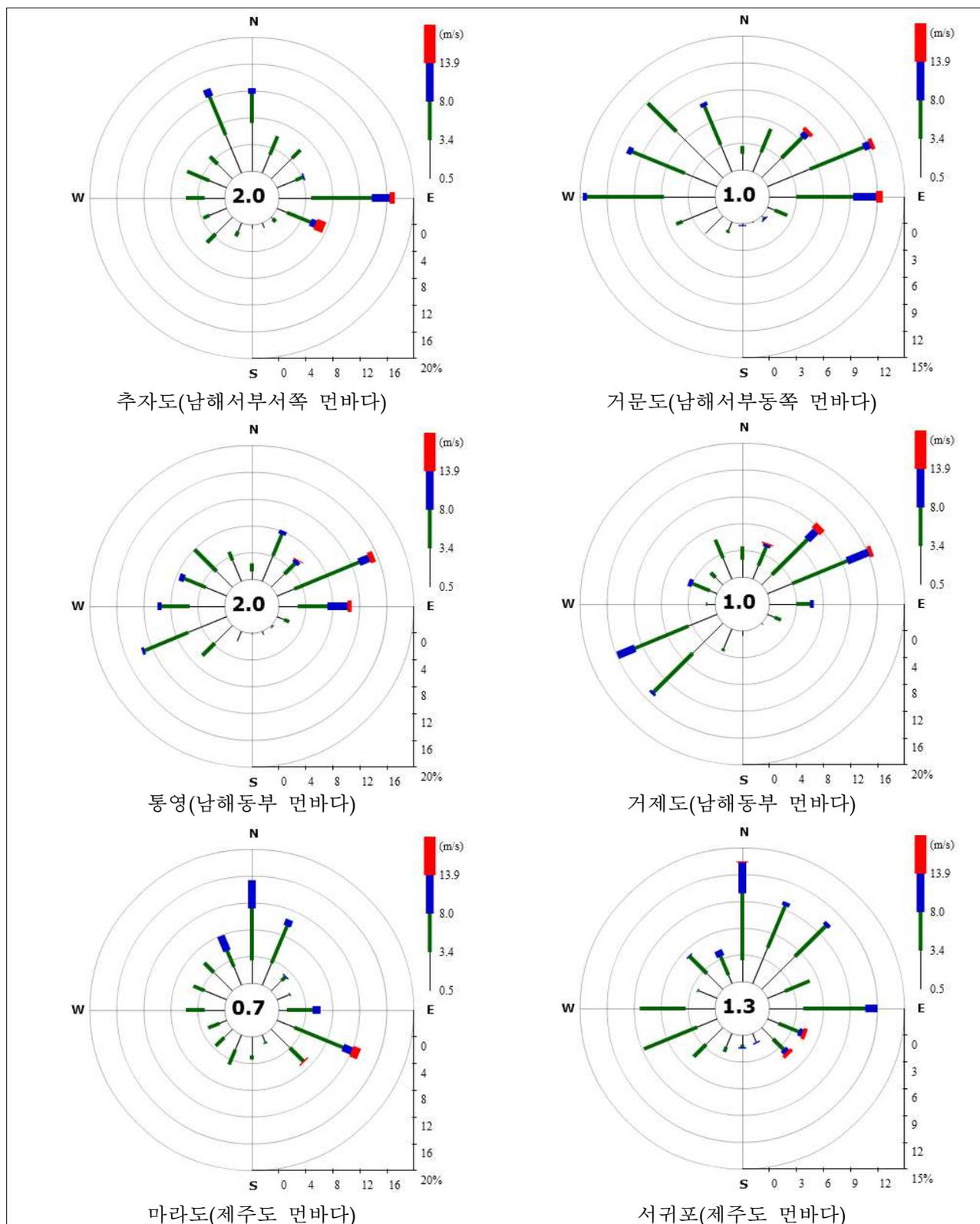
< 4월 어업별 예상 어장 >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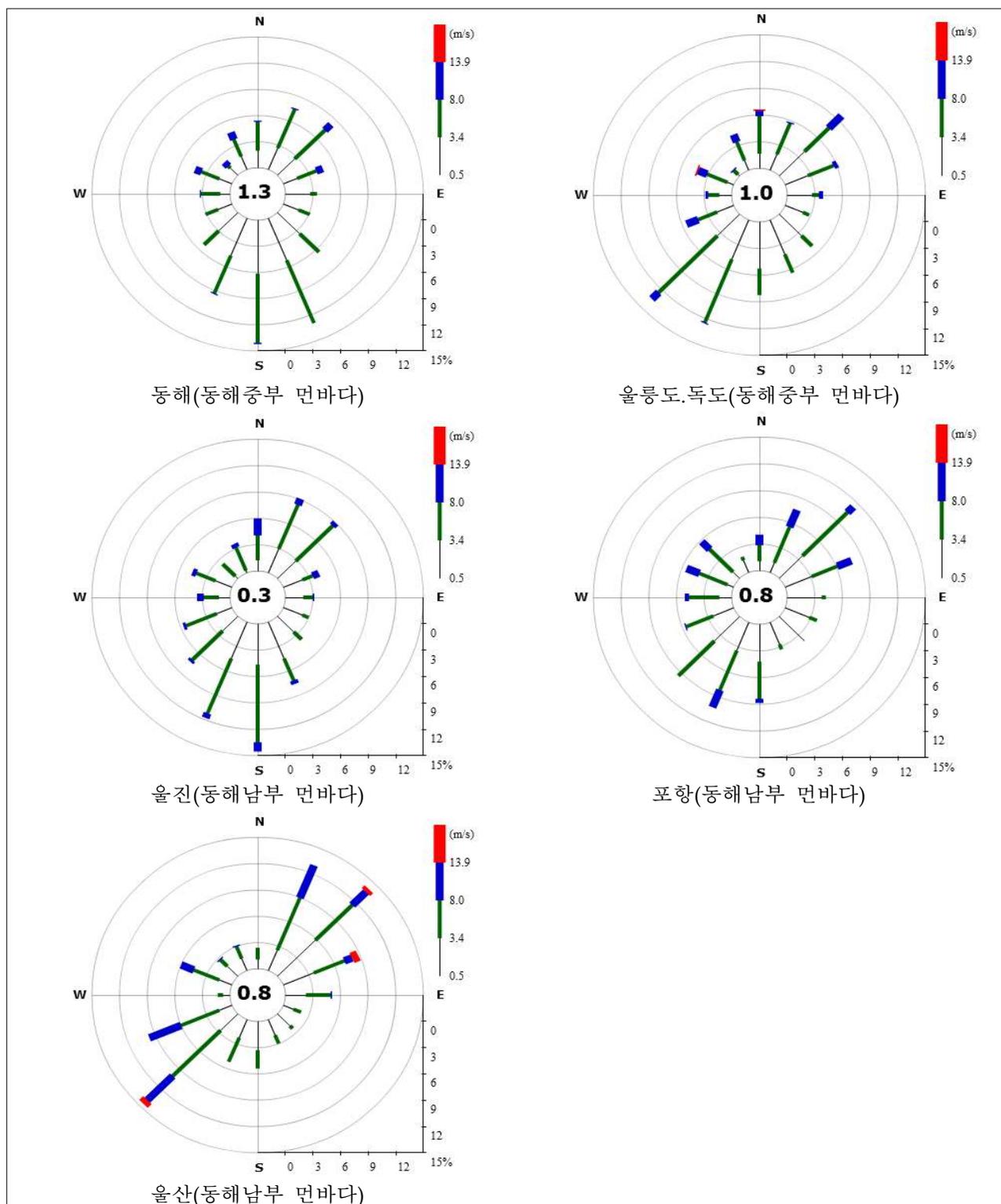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상)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제주해상)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부록 2】

4월의 주요 해상조난 사고 사례

제공: 해양경찰청

○ 사고 사례

일 시	선 명	피 해	사고원인
'17. 4. 8.	1*명*호 (336톤, 급유선) TIAN *호 (8,574톤, 화물선)	선체 손상	저시정(200yds) 상황에서 견시 불량 및 항법 준수 위반 * 당시 기상 : 남서풍 2~4m/s, 파고 0.5m, 시정 200yds
'18. 4. 12.	200*연*호 (15톤, 어선) XING *호 (498톤, 화물선)	3명 사망 3명 실종	운항부주의 * 당시 기상 : 북동풍 4~8m/s, 파고 1m, 시정 3마일



200*연*호 - XING *호 충돌

【부록 3】

4월의 주요 해양 사고 사례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1. A호 예인선열·어선 B호 충돌사건

사건명		A호 예인선열·어선 B호 충돌사건
사건개요	선박	A호: (예선) 297톤, 길이 34.26미터, 강 재질, 디젤기관 1기 (부선) 5,613톤, 길이 93.60미터, 강 재질 B호: 어선, 106톤, 길이 28.91미터, 강 재질, 디젤기관 1기
	일시	2016. 3. 18. 00:34경
	장소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74마일 해상
	피해	어선 전복, 어선 승선원 9명 전원 실종
	상황	안개로 시계가 10~15m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던 예인선열과 어선이 충돌하여 어선이 전복되고 승선원 9명 전원이 실종
날씨	시정 10~15m, 북동풍 초속 14m, 파고 1.5m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예인선열과 어선이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시계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를 주위의 선박들에 알려야 함 ○ 예인선열의 항해사는 제한된 시계에서는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충돌 상황도	<p>충돌 상황도</p> <p>예인선열 침로 226도 속력 8노트</p> <p>어선 침로 164도 속력 4.7노트</p> <p>충돌각 62도</p> <p>①1차충돌(예인열) ②2차충돌(부선우현)</p>	

2. 어선 C호·유조선 D호 충돌사건

사건명		어선 C호·유조선 D호 충돌사건
사건개요	선박	C호: 어선, 69톤, 길이 24.89미터, 강 재질, 디젤기관 1기 D호: 유조선, 6,262톤, 길이 124미터, 강 재질, 디젤기관 1기
	일시	2015. 3. 19. 05:58경
	장소	제주도 마라도등대로부터 113도, 약 65마일 해상
	피해	C호 선수부 손상, D호 좌현 외판 일부 손상
	상황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던 어선의 우현 선수부와 유조선의 좌현 선수부가 충돌하여 선체가 일부 손상되는 피해를 입음
날씨	시정 0.5~2마일, 북동풍 초속 8~10m, 파고는 1~2m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 ○ 유조선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경우 엄중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경우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함 ○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경우 규정된 음향신호를 취명하여야 함 	
참고사진		